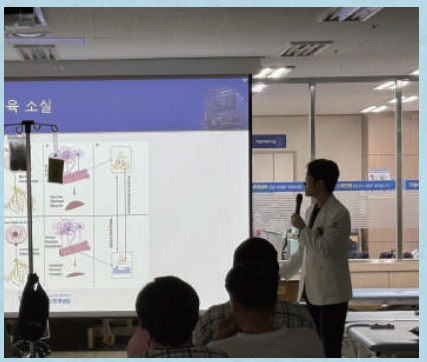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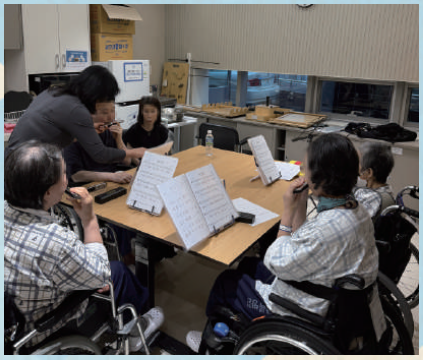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48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6.04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30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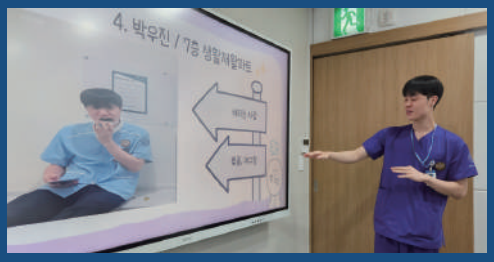
3기 신입직원온보딩_1차 OT (04.09)

3기 신입직원들이 해나행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신입직원 온보딩 프로그램 1차가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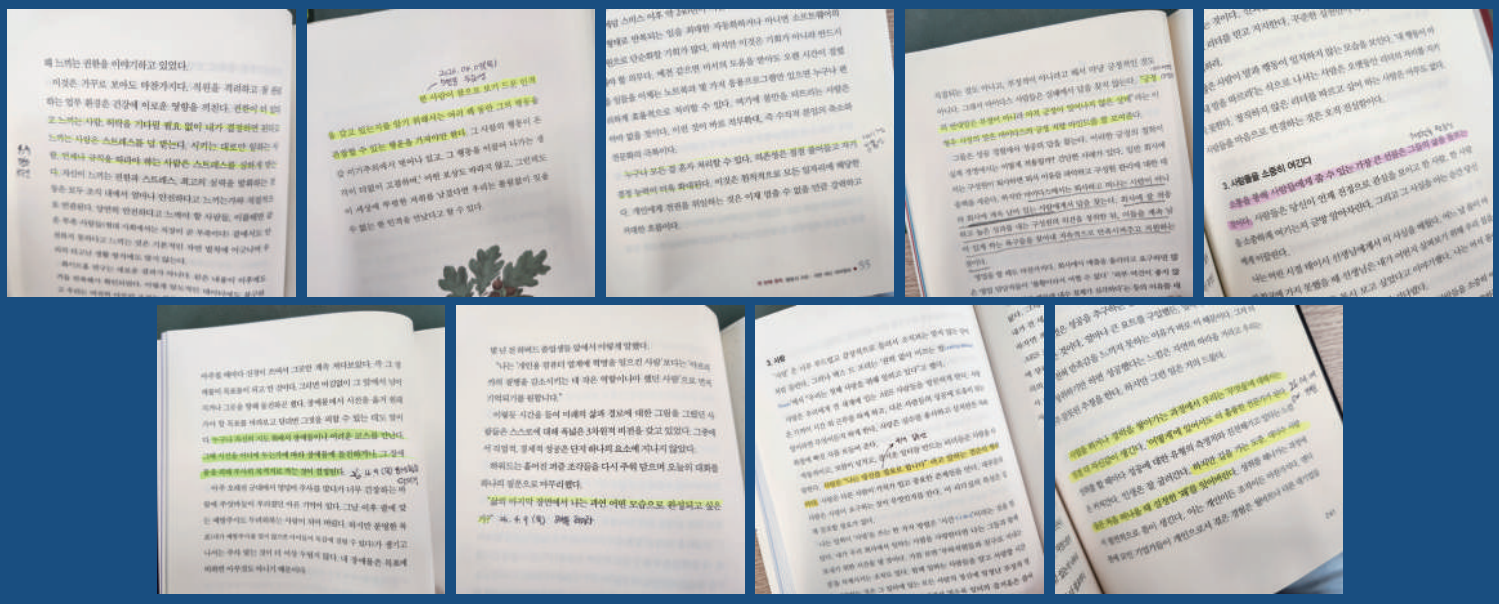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과 병원 소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해나행 필독서'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 인상 깊게 이어졌습니다.

신입직원들은 필독서를 통해 병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이해하고,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며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공감과 소통 속에서 진행된 이번 온보딩은 신입직원들이 조직의 일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슬기로운재활생활 (04.22)





슬기로운재활생활은 재활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매월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재활치료와 준비된 퇴원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유익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첫 강의는 '척수손상 회복기 재활의 이해'를 주제로 서휘 부장님께서 교육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회복기 재활의 전반적인 과정과 척수손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 및 증상에 대해 설명하여 참여자들이 질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능 회복과 재활치료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근육 위축, 강직 등 실제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입원 중 합병증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고, 치료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5월에도 다양한 주제의 재활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사회복귀 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행복 하모니' 이야기(하모니카 프로그램) (0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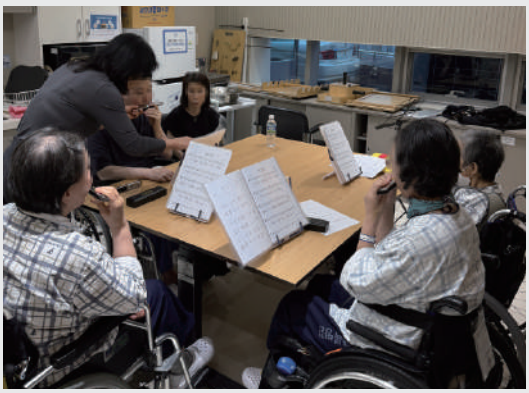
4월 7일, 지난해에 이어 더 프라미스 오케스트라 대표님이자 지휘자이신 정희자 강사님과 함께 특별한 음악 재활 프로그램 '행복 하모니(하모니카 프로그램)'를 시작했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직원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동안 총 8회기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모니카는 작고 소박한 악기이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호흡근을 단련하고, 폐활량을 향상시키며, 구강과 안면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때로는 어긋난 음조차 함께 웃으며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이 시간은, 각자가 만들어낸 소리가 하나의 화음으로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하모니카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한 곡씩 배워나가며 작은 성취를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 올해도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작은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룹치료 프로그램 (04.12)

재활 2팀과 사회사업팀이 함께하는 그룹치료 시간!
이번 시간에는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원목 압화 액자를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 19명, 보호자 11명이 한자리에 모여 자기소개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따뜻한 눈인사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업은 각자의 개성이 담긴 압화를 선택하고, 액자에 배치하며 나만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작은 꽃잎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떼어내고 사진과 함께 배치하는 과정속에서 집중과 몰입이 이어졌고, 참여자와 보호자 간 자연스레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그룹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분들의 기능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회복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04.04)

4월, 따뜻한 봄날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에서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5월 2 (토) 오후 3시 30분, 7병동 휴게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체험 (03.16)



수영체험을 위해 한마음스포츠센터를 다녀왔습니다. 평소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참여자 두 분과 함께 방문하였으며, 수영체험을 참여자분을 모셔서 가는게 처음이라 기대감을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수영장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외부에서만 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후, 물속으로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로 옮겨 탄 뒤 수영코치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에 입수하였습니다.

물에 들어가신 후에는 수영도 잘 해내시며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여자분들께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편의시설 측면에서는 척수 참여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 트랜스퍼 공간이나 샤워시설 내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하여 이용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편의시설이 개선된다면 척수 참여자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휠체어스쿨 (04.06)

3월 프로그램 준비기간을 거쳐 한 달이 지난 후, 4월부터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참여자 1분이 새롭게 참여하셨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나눈 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를 나누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참여자분들은 복합 장애물을 이용한 연습을 반복하여 진행하였으며, 익숙해진 모습으로 모두 능숙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신규 참여자분들은 회전과 밀기 동작을 연습하며 휠체어 조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퇴원을 앞둔 참여자분이 계신데, 휠체어 스쿨을 통해 배운 다양한 스킬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여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4.10)

낮병동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해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립을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과 성실한 참여가 모여 만들어낸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 출석왕 박정○ 님
  "함께 도와주는 남편, 선생님,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 출석왕 박현○ 님
  "남은 기간도 빠짐없이 출석하겠습니다."
- 자립왕 박태○ 님
  "아들 사랑합니다."
- 자립왕 김진○ 님
  "앞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로의 노력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는 이 시간이 참여자분들께 또 하나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낮병동 일상재활센터는 일상 속 작은 변화와 성장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35대 꿀꺽왕 시상식 (04.03)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꺽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5대 명예의 꿀꺽왕 이○호님이 수상하였고, 4/3일 꿀꺽왕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호님께서는 연하치료를 마무리하며 "처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치료 과정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해주셨습니다.

또한 묵묵히 치료에 임해오신 시간만큼, 앞으로의 일상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해주셨습니다.

2026년 1분기 근접오류 보고 우수 부서 선정!

★★★

2026년 1분기 최고의 환자 안전 지킴이

6층 생활재활센터



근접오류 보고 TOP4



6층 생활재활센터	4건
재활치료1팀	2건
8층 생활재활센터	1건
5층 생활재활센터	1건

근접오류는 비난이 아닌 배움의 기회입니다.

환자 안전도 지키고! 포상도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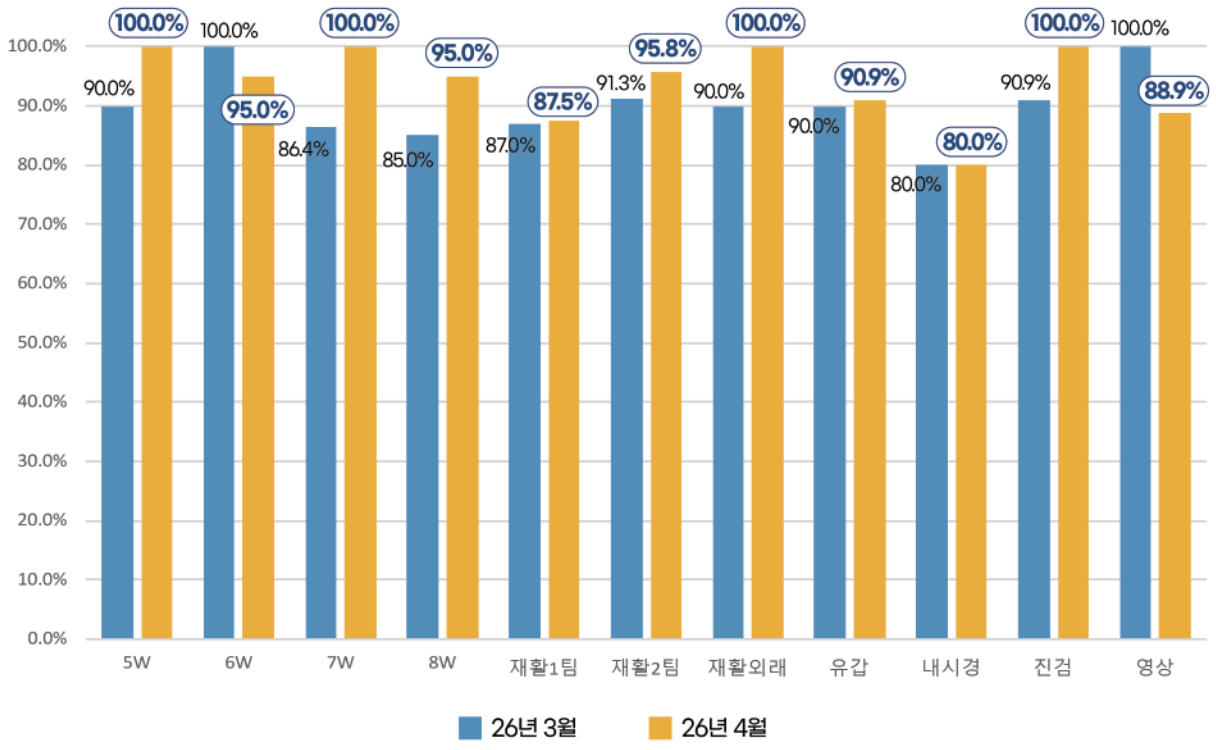
2026년 4월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6년 04월 01일 ~ 2026년 04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6년 3월 결과와 비교 분석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78	167	93.8%	+ 3.9%

4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야간전담과 이상로 과장님 임명식 (04.22)

2026년 4월, 우리 병원은 야간진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로 과장님을 야간전담과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임명식은 재활의료 전체 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상로 과장님은 우리 병원과의 특별한 인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자로 방문하여 재활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후, 이제는 야간전담의로서 참여자분들을 책임지는 의료진으로 함께하게 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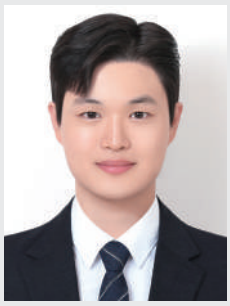
앞으로 해나행과 함께 만들어갈 이상로 과장님의 행보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04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5W) 천세훈 간호사


재활간호팀(6W) 우준영 간호사


재활간호팀(6W) 김주연 간호사


재활간호팀(7W) 박우진 간호사


재활간호팀(7W) 편효진 간호사


재활간호팀(8W) 안미경 간호사


재활간호팀(8W) 최미화 간호사


내과내시경팀 조정희 간호사


내과내시경팀 김홍선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8W) 양세연 간호사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
송지은 언어치료사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생명나눔실천본부 의료비지원 (04.10)

2,3월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최OO님, 황OO님이 선정되어 각 25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최OO님은 입원 전 이발소를 운영하였으나 경기 악화로 폐업한 이후 조선소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우며 자녀가 없어 가족의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보호자인 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 현재 치료비 전액을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황OO님은 뇌출혈로 2025년 5월부터 회복기 재활치료를 시작하셨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로 초기에는 치료비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복기 치료 종료 이후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인지 및 언어치료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하였고, 정부지원금인 생계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보호자인 지인께서 자부담으로 충당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치료비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용 서비스 (04.21 / 04.24)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중인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78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달의 칭찬 직원들

한 페이지에 모두 담기 어려웠던 진심 가득 담긴 **고객님들의 감사&칭찬 메시지♥**

가정의학과 황은교 과장



#적극적인 경청 #인지적 공감
#환자와의 라포형성 열정
#검진결과 자세한 설명

내분비내과 박미경 부장



#친절 정확한 진료
#자가치료방법 #상세한 설명
#나눔행복병원의보배

진단검사팀



#단 한번의 주사 #놀라운 채혈 실력
#매번 감탄 #모두 친절
#두려운 마음을 편안하게

심장내과 박민아 과장



#신속 정확한 진단 #골든타임
#빠른 판단 #자세한 설명
#친절한 진료 #감명 #최고

소화기내과 남지현 과장



#병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안정감을 주는 친절함
#꼼꼼하고 깔끔한 진료

소화기내과 고인영 부장



#항상 친절 #간호사분도 친절
#이해하기 쉬운 설명
#늘 고마운 마음

소화기내과 류승훈 부장



#알기 쉽게 상세한 설명
#친절한 의료진, 직원들의 모습
#감사합니다

갑상선유방센터 신수영 과장



#과잉진료 없는 신뢰높은 진료 #전문적인 의료기술 #이해 쉽고 명쾌한 진료설명
#환자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차분함 #한결같은 친절함 #인상깊은 의료진
#암환자로서 큰 위안과 용기 #지인 강력 추천

갑상선유방센터 백선미 병원장



#친절하고 편안한 진료 #진심어린 경청 감동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
#탁월한 전문성 #깊은 신뢰와 위로 #비수술적 최적의 치료 #나아진 삶의 질
#수술없이 다시 찾은 건강한 일상 #이 병원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

갑상선유방센터 김현수 과장



#전문성 #꼼꼼한 진료
#검사받는 내내 편안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

갑상선유방센터 손정민 부장



#편하고 믿음이 가는 진료
#친절한 설명
#신속정확한 촬영 검사

재활간호팀 지명수 간호사



#외래진료 문의에도 친절하게
#직접 확인 후에 전화까지
#환자 배려 #상세한 안내

재활코치팀 성민규/권진태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
#직접 가정 방문 #보호자 교육까지
#재활코치님들 최고

재활치료1팀 김대인/장수윤 치료사
재활치료2팀 추진엽 치료사



#환자 결점 확인 #철저히 재활 훈련
#환자를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하며 지도

재활치료1팀 서영득/양주영/임다애/김소연 치료사
재활치료2팀 하수원 치료사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 김정선/윤다은 치료사



#항상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시는 선생님들
#칭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재활치료1팀 이강민 치료사



#너무 친절 #스마일맨
#친절직원상 좀 주세요

재활치료1팀 김희진 치료사



#진실함이 우러나는 마음
#내부모님같이 치료해주시는 선생님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 박정민 치료사



#인지치료 최고 #덕분에
#이젠 달력도 잘봐요
#가족 이름도 모두 적을 수 있어요

원무팀 김태완



#이 병원에서 제일 친절
#최고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행러닝크루 5월 러닝이벤트 안내

온길런

함께 잇는 길

나행러닝크루에서 5월 러닝이벤트「온길런: 함께 잇는 길」을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될 '온길'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을 러닝으로 이어가며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일 시	5월 14일 (목) 오후 6시
장 소	해운대 해수욕장 엘시티 올리브영 앞
안 내	우천시 일정변동 가능

이번 러닝이벤트는 팀 미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팀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누적 합산하여,
가장 긴 거리를 달린 팀이 우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빨리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함께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카카오워크 @백영수

밀알복지재단 '장애인의 날 당신의 이야기' 모집 참여

'한혜지 간호사' 1위 당선



일상재활파트
한혜지 간호사



이벤트 소개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후원자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만나온
장애인 가족, 친구, 이웃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집 안내

참여 대상	밀알복지재단 후원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내용	· 장애인 가족, 친구, 지인과의 이야기 · 장애를 통해 느낀 변화나 깨달음 ·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순간 등
참여 방법	참여하기 클릭 후, 사연 제출 사연 참여하기
참여 기간	2월 26일(목) - 3월 19일(목)
당첨 안내	4월 21일(화) · 밀알복지재단 소식지, 블로그, SNS에 소개됩니다. · 사연 선정자에게는 4월 중 개별 연락드립니다.
참여 혜택	1등(1명) 10만원 신세계 상품권(기프티콘), 굿즈 2등(1명) 5만원 신세계 상품권(기프티콘), 굿즈 3등(1명) 3만원 신세계 상품권(기프티콘), 굿즈 추첨(5명) 스타벅스 커피(기프티콘), 굿즈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장애 중증, 뇌병변장애 경증의 중복장애를 가진 재활병원 간호사입니다.

사고로 장애를 얻었고, 처음에는 숟가락을 드는 일조차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던 일상이 한순간에 멈춰 버렸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을 거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조금 느리지만, 저만의 방법으로 일하고 움직이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아버지도 지체장애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장애인'으로 인식하며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버지였고, 가족을 든든히 지키는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생각보다 크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이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넘어 자신의 삶을 살아낸 한 사람의 모습이요.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은 '장애인'이라는 단어 앞에서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절망하십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같은 시간을 지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만 바라보면 삶은 점점 작아지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삶은 다시 넓어진다는 사실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웃을 수 있는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
그것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간호사이지만, 병원에서 저는 '장애인'이 아니라 '간호사'로 일합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회복을 돕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장애는 제 삶의 한 부분일 뿐, 제 삶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바깥의 시선이 두려워 문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타인의 시선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다르게 해도 괜찮다고.

저 또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장애가 우리의 가능성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 한ㅇㅇ님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스물아홉 번째 이야기

29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밥상

“환절기에는 상큼하면서도, 매콤하고,
영양 만점인 밥상이 절실하다”











는 참여자분의 요청에 따라,
4월, 환절기 건강 관리에 좋은 밥상을
식탁으로 초대해 보았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정성으로 준비한
상큼한 훈제오리무쌈샐러드와
매콤하게 즐기는 순두부찜,
아삭한 열무나물에
속을 편안하게 채워 줄 뜨끈한 탕국,
여기에 고소한 잡곡밥까지 더하면
맛과 영양, 색감까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몸과 마음이 모두 만족하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오늘 식탁에는 맛과 건강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정성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환절기에도 건강과 온기를 지키며,
작은 한 끼에서 느낄 수 있는 포근함과 활력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4.14 / 04.22)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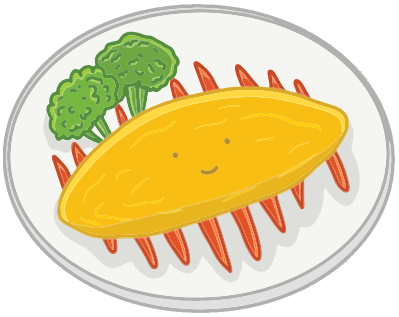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을 함께 데려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양팀에서는 기깔나게 맛난 오므라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란 옆구리가 터지지 않도록 한 땀 한 땀 땜빵하면서...ㅎㅎ)

여러 재료를 따뜻하게 감싸
하나의 완성된 맛을 이루는 오므라이스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정성을 더해 다간다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모습에 닿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두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도 힘차게 외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옆구리 터지지 않는 오므라이스, 파이팅!ㅎㅎ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새로운 습관

잔반 줄이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이번 2분기에는 격주 수요일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잔반통이 사라져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잔반 몰래 버리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ㅎㅎ
잔반통이 없어진 만큼 우리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더 건강한 지구를 지키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딱 먹을 만큼만, 남김없이!"
작은 실천이지만,
여러분의 위장과 지구 모두가 웃는
즐거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잔반 줄이기는
분기별로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깜짝 소식!
잔반 줄이기 아이디어에 채택되면...
한아름 간식 폭탄이 찾아갑니다.

누군가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일

병원의 아침은 일정한 리듬으로 시작된다. 15년째 매일 아침 치료를 준비하는 치료사실의 낮은 웅성거림,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참여자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마찰음들. 나의 서른과 마흔은 이 소리들 틈에서 눅눅하게 익어가고 있다.

물리치료사로 일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가장 무거운 '삶의 무게'를 손바닥으로 받아내는 일이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참여자의 마비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단순히 근육과 뼈를 다루는 물리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들어 올리는 것이 한 사람의 무너진 일상과 그 가족의 막막한 내일이라는 사실이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내 손바닥에 굳은살 대신 타인의 고통을 예민하게 읽어내는 미세한 감각을 남겼다.

어느 날은 참여자의 발등을 감싸 쥐다가 문득 내 손등을 보았다. 예전보다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손.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의 비틀거림을 붙잡았던가. 어떤 이는 끝내 스스로 일어서지 못했고, 어떤 이는 기적처럼 첫걸음을 떼며 가족과 함께 울었다. 그들의 눈물과 땀이 내 유니폼에 스며들 때마다 나는 조금씩 소모되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다시 채워지는 생의 감각을 배웠다.

이제 나는 병원에서 파트장의 위치에 서 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너리즘이라는 얇은 막에 진심이 덮힐까 두려워지는 이름이기도 하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이전보다 더 복잡한 책임감에 가려져 있다. 하지만 이 막막한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을 것임을 문득 깨닫는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가 지치지 않고 누군가의 삶을 붙들 수 있었던 건, 치료실에서 마주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던 동료들 덕분이었음 알기 때문이다.

참여자의 회복을 함께 고민하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동료 치료사들, 이른 아침 병동의 청결을 책임지는 분들, 정성 어린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과 행정의 공백을 묵묵히 채워주는 이들까지. 우리는 각기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생(生)이 다시 반짝이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의 결'을 가진 사람들이다. 좁은 치료실 안에서 막막함에 갇힐 때마다, 치료실을 울리는 동료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보이지 않는 부축이다.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만은 않다. 한 걸음을 떼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동원하는 참여자들의 사투 곁에,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5년 전의 내가 그랬듯,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보폭에 나의 박자를 맞춘다. 비록 그 발걸음이 때로 무거울지라도, 우리가 함께 향하는 곳은 여전히 '삶'의 한복판일 것이기에. 나는 오늘도 동료들에게 낮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다시 치료실로 향한다.



재활치료1팀
윤찬우 파트장



벚꽃, but 나무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번해 벚꽃은 예상보다 더욱 빨리 개화하고
꽃이 핀지 얼마되지 않아 계속 되는 비소식으로
꽃구경가기 쉽지 않았더랬다.

학생때는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며 농담을 하며
벚꽃이 지는것 쯤은 아쉽지 않고 금방 잊고
공부, 연애, 취직, 동아리, 술자리 등 당장의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했다.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긴건지,
내면의 여유를 찾아 헤매는지
꽃이 빨리 져버리는 것이 퍽이나 아쉽다.

매일 매일 바쁜 삶에 치여
꽃이 지는 것 처럼 이렇게 내 젊은 순간
또한, 순식간에 져버리는 기분이다.

벚꽃의 진짜 꽃말은 '순수함·아름다움·삶의 덧없음'
벚꽃이 짧게 피고 금세 져서 '덧없음'이 붙었다고 한다.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매일 반복되는 삶에 물음표를 던져본다.

마지막 잎새마냥 꽃이 진다고
그래서 나의 삶도 정말 덧없이 끝이 나는가?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남아있는 나무는 여름을
맞이하며 푸른 잎이 무성해진다.
그리고 다음해가 되면 다시 꽃이 핀다.

벚꽃은 지지만 나무는 매년 꽃을 피우지 않는가
나는 벚꽃인가? 벚꽃을 피우는 나무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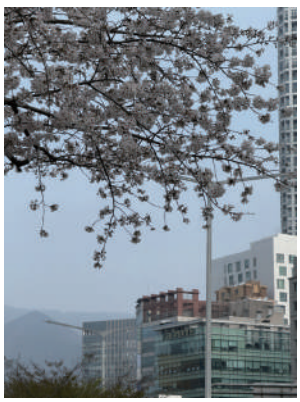
옛 말 중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는 말이 있다.
각자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각자 저마저의 사정으로 치열하게 버티는 것이 삶이다.

나의 가치는 잠깐 피고 지는 꽃이 아닌 더 큰 나무로 머물며,
내가 해 온길이 실패가 아닌 자양분이 되어 튼튼한 나무가 되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잎도 나며 이어지는 삶의 이벤트
중 하나로 그저 순간마나 소중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면 좋겠다.

이런 순간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고 힘든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직장의 동료들과 참여자들의 만남을
이어준 '온길병원'에 감사합니다.



재활치료2팀
정혜인 팀원





브랜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원고모집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담는 공간으로 운영중입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있었던 일뿐 아니라,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사진 한 장, 짧은 글 한 줄도 모두 환영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주세요.
직접 참여해 주신 직원분들께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원고는 **매월 25일까지 홍보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료에 해당하는 사은품은 **당월 응모량 및 글 내용을 반영**하여 브랜딩실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48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6년 04월 30일
편집인 브랜딩실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